

第102回(定例會)

#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3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時 2000年 6月 23日(金) 10時06分

### 議事日程(第3次本會議)

1. 鐘路區廳長에 대한 區政質問의 件(繼續)

### 附議된案件

1. 鐘路區廳長에 대한 區政質問의 件(繼續) ..... 1面

(10時06分 開議)

○副議長 吳錦南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시작에 앞서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본 의원이 의장님을 대신하여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에 따른 병원 파업 철회 독려로 이 자리에 부구청장님과 재무국장님, 보건소장님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의원님들께 알려드리면서 널리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1. 鐘路區廳長에 대한 區政質問의 件(繼續)

○副議長 吳錦南 의사일정 제1항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6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종로구청장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회의의 진행 방법은 오늘도 어제와 같이 오전에는 일괄 질문과 오후에는 일괄 답변을 받도

록 하겠으며 질문하실 시간은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재무건설위원장인 吳弼根 議員!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弼根 議員 혜화동 출신 吳弼根 議員입니다. 금년부터 실시되는 첫번째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 의원에게 힘과 용기 그리고 성원을 보내주신 1만 2천여 혜화동 주민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본 의원이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 요지는 혜화여고 부지 활용의 건과 혜화여고 주변 도로개설의 건, 혜화동 지하철 입구의 적환장 이전의 건, 데모 빈번 발생지역에 유색 아스콘 시공의 건으로 네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혜화여고 부지 활용의 건입니다. 혜화여고가 2002년 2월 신축교사 이전계획에 따라 본 의원이 '98년 12월 9일 구정질문을 통해 혜화여고

자리에 종합예술고등학교 유치를 건의하였고 구청장께서는 해화여고 이전시 부지를 확보하여 종로구 문화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종합예술고등학교의 설립을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구청장님! 기억 나십니까? 그런데 해화여고 자리에는 해화초등학교가 이전하고 해화초등학교 대지 1,483평 건물 450평에는 우리 구에서 1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구립 운동장을 건립한다고 종로구 중장기투자계획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종로가 교육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던 것도 종로에는 명문학교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는데 70년대 강남 개발에 편승하여 명문학교들이 종로를 떠남에 따라 교육의 중심지라는 종로의 옛 명성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국민의 다양한 체육활동을 위하여 구립 운동장 건립을 찬성합니다마는 유서깊은 학교를 헐고 그 자리에 구립 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은 재고되어야만 합니다. 구립 운동장은 학교를 헐고 건립하는 것보다는 그린벨트 내에 나대지를 물색하여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21세기는 지식정보화 시대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걸맞는 컴퓨터, 이미지, 체육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종합기술전문학교 설립을 촉구합니다. 해화초등학교 부지를 성균관대학교에서 매입하여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도 있는 바 우리 종로구의 학교 매입의사와 활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해화여고 주변 도로 조기착공을 촉구합니다. 구정질문 첫번째 사항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해화여고는 내년 2월이면 이전하게 됩니다. 해화여고 주변에 폭 6m, 길이 연장 210m 도로는 단축도로로 주민들이 우회 통행하는 불편을 겪어왔고 따라서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지만 도로개설에 학교부지가 편입되어 있어 지금까지 도로개설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98년 1월 동민과의 신년인사시 해화여고 주변 도로개설의 긴급함을 인식하시고 조기 착공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도로개

설에 따른 실시설계도 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모든 사업은 때가 중요하며 시기 선택에 따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해화여고 주변 도로개설은 해화여고 이전 시점인 2001년 2월이 적기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서 주민들과 약속한 상기 도로의 조기착공을 촉구하오니 구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해화동 지하철 입구 적환장 이전을 재촉구합니다. 해화동 지하철역은 대학로의 관문이고 대학로는 젊은이의 광장입니다. 오는 7월부터 해화동 동사무소 입구 대명거리에서 성균관대학 입구까지 약 14억원의 서울시 예산을 투입하여 역사탐방로 공사가 시행됩니다. 아름다운 거리,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吳鍾錫 건설교통국장께서 직접 한국전력공사에 찾아가셔서 한국전력과 협조하여 전기 지중화 공사 예산을 확보, 전봇대, 전신주 없는 거리가 되도록 힘써주신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사탐방로 공사가 완료되면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리가 될 것이며 내국인은 물론 외국 관광객이 즐겨찾는 역사탐방로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역사탐방로의 한복판에 쓰레기 적환장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해화 지하철역 쓰레기 적환장을 조속히 이전할 것을 재촉구합니다.

넷째, 데모 발생 빈도가 많은 지역의 보도블록을 유색 아스콘으로 대체할 것을 건의합니다. 대학로를 비롯한 종로통과 대학로 주변은 각종 시위와 집회가 빈번합니다. 각종 시위와 집회 과정에서 보도블록을 깨뜨려서 집어던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치는 사례가 많고 깨진 보도블록을 교체하기 위해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으므로 최초에 돈이 더 들더라도 유색 아스콘으로 시공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방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吳錦南 吳弼根 財務建設委員長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洪起瑞 運營委員長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起瑞議員 명륜3가동 출신 洪起瑞議員입니다. 존경하는 洪承台 議長님과 吳錦南 副議長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초여름의 길목에서 처음 실시되는 6월 정례회 준비에 노고가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또 모든 것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도 묵묵히 각자 맡은 일에 충실히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鄭興鎭 區廳長님과 집행부 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의회 청사에 대한 신축이나 확장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별도의 청사가 없이 처음 의회가 개원될 때부터 현재까지 몇 개의 회의실과 부속 사무실들은 구청 각 과 사무실들과 함께 사용하고 있고 의회가 사용하는 회의실과 사무실은 매우 협소하여 회의실의 경우 관계법에 따라 회의 진행상황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토록 되어 있으나 방청할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 일부 관계공무원들 외에는 방청할 수가 없는 실정이며, 의원들이 의회에서 의정활동에 반드시 있어야 할 의원사무실은 현재 상임위원장실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도 말이 상임위원장실이지 모든 의원들이 휴게실을 겸해서 사용하고 있어 사무실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의회에 나와도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자료수집 구정업무 민원처리 등의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 현재의 부의장실을 없애고 의장실도 최소한의 면적으로 하여 의원들의 책상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구상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회는 위치적으로 구청 본관으로 들어가는 복도와 화장실 등이 있어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과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평소 의회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의회가 열리는 회기 중에는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본 의원이 서울 24개 구의회 청사에 대하여 조사를 한 바 구청과 별도로 독립된 지역에 건물이 있는 청사로는 18개 구이며, 구청 내에서 독립된 청사 건물을 갖

고 있는 구의회는 1개 구가 있으며, 나머지 5개 구가 구청과 구의회가 한 건물에서 사용하고 있으나 그것도 대부분이 최근에 신축한 통합건물이므로 우리 의회와는 여건이 같지 않습니다. 물론 구청도 우리 의회보다도 더 어려움이 많고 앞으로 동사무소 기능이 전환되면 동사무소의 많은 직원들은 구청으로 흡수하고 그에 따른 관련 부서들을 신설해야 하는 등 구청도 사무실 공간 확보가 매우 시급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개원된 지도 벌써 9년이 되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시기적으로 독립된 건물이나 현재의 의회 회의실과 의원사무실 확장에 필요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모든 사무를 통괄토록 되어 있는 구청장께서는 구의회 청사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와룡공원 관리 개선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와룡공원은 면적이 약 6만 5천평입니다. 공원관리는 공원녹지과 주관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99년도에 약 30년 된 아카시아나무를 전량 베어내고 '99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잣나무 등 여러 종류의 나무들로 교체하고자 시민의 생명의 나무 심기에 지원을 받아 푸른 종로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여 많은 단체 및 시민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나무를 심었으나 금년 가뭄으로 인해 많은 나무가 고사되었는데 가뭄에 물을 주고 싶어도 수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원 팔각정에 수도시설을 하여 산책로에도 물을 마실 수 있고 가뭄에 나무에 물을 줄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서 배려가 있기를 간청하며 또 아울러 공원녹지과의 상용인부들이 5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기술직이 아닌 관리이기 때문에 나무 관리에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직이라도 정원사를 1명 정도 채용하여 나무를 관리하면 많은 나무들이 생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종전에는 30년 이상된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청소나 하는 등 공원 관리에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현재는 나무들을 새롭게 심었기에 기술직인 정원사를 지정을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타구인 송파구청은 올림픽공원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여 잘 관리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관리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지만 상용인부 1명을 정원사로 교체하여 나뭇가지도 쳐주고 병충해도 예방하면 많은 나무들이 생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시민 기념식수는 결혼기념식수, 생신기념 등 자기 가정의 특별한 날을 영원히 기리고자 기념명찰을 달아 기념식수를 했는데 관리 부족으로 그 나무가 죽었는데 만약 그분들이 확인차 산을 올라와서 목격을 했을 때 그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우리 구청을 얼마나 원망하겠는가 우리 모두가 생각해봐야 되겠고, 또 아울러 나무를 심기 위해 곳곳에 구덩이를 파놓고 아직도 나무를 심지 않고 방치되어 여름철 장마 때 산사태가 날지 여러 가지 염려스러워 속히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곳곳에 화장실을 개축 내지는 보수를 하고 있으나 와룡공원에는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 악취가 많이 나고 있으니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원으로 관리해서 공중화장실을 신설하실 대안이 있으신지 구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기능 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동료 의원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바로 시범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동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들을 발췌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사무소 기능 전환은 금년 7월까지 전면 실시하려고 했으나 또 다시 10월로 연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하여 명륜3가동과 송인1동이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너무나 많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먼저 건축분야 소규모 건물 인허가 신청시에도 동사무소에서 접수했던 것을 구청까지 가야 되는 번거로움, 토목분야도로 보수 등 소규모 편익사업, 보안등 수리 요구 등이 동사무소에서 수리를 요청하여 또 다시 구청 토목과에 요청하는 등 주민들의 불편사항 등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신고를 해도 그때그때 처리가 늦어져 주민들의 원성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구청 어느 과에서 어떤 업무를 처리하는지 홍보 부족으로 구청에 가서도 민원부서를 찾기 위해 해매는 사항이 다반사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도 들춰보면 명륜3가 자치센터도 요리교실 등 15개 과목을 운영하고 있지만 수강생 모집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구민생활관, 청소년회관, 중부여성문화센터 프로그램과 중복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고, 동사무소 기능도 동장을 포함해 7명이 근무하고 있어 인력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사무소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었지만 1년이 경과된 지금도 모든 민원인이 일차적으로 동사무소에 신고가 접수된 후 또 다시 구청으로 접수되는 번거로운 어려움이 있기에 시기적으로 동사무소 기능 전환은 시기상조입니다. 특히 금년 4월 13일 총선거, 구민의 날 체육대회, 경로잔치 등 큰 행사가 있을 때는 동직원들이 일이 부르도록 휴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옛날 자유당 정부에서는 구청까지 운영하여 동민들이 동회가 절실히 필요하여 주민들 자체적으로 동회비를 징수하여 동회를 운영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렇게 발전되었는데 또 다시 50년 전 행정으로 되돌아가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발상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상위법에 의해 부득이 동사무소 기능 전환을 하더라도 동직원은 최소한 10명 이상은 보장되어야 되고 기동력을 위해서도 종전 차량은 종전대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그동안 2개 동을 1년 동안 운영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췌하여 동사무소 기능 전환은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행정자치부에 강력히 건의하여 동사무소 기능 전환을 전면 백지화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집행부의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부장적 전통이 강한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이 잠재하고 있고 사회의 각 분야에서는 공공연하게 남녀차별이 이루어짐으로써 인류 역

사의 동반자인 여성의 지위와 사회참여가 대단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평등사회를 구현하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여성특별위원회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남녀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1995년 12월 30일 여성발전기본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법 제5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책무를 지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일부 자치구에서는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여성발전기금과 여성위원회를 설치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지역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여성단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 취지에 따라 여권 신장을 위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또한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밝혀주시고 여성의 지위 향상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관련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副議長 吳錦南 洪起瑞 運營委員長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의 순서이나 사회를 보는 관계로 질문할 수가 없어 미리 제출한 질문에 대한 내용은 구청장님께서 오후 일괄 답변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丁炳煥議員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炳煥議員 존경하는 洪承台 議長님과 吳錦南 副議長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9만 종로구민을 위하여 진정한 봉사자로서 전통문화의 종로, 아름다운 종로, 미래로 나아가는 종로를 만들기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鄭興鎭 區廳長님과 盧張鐸 副區廳長님! 1,400여 종로구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사 직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

십니까? 무악동 출신 丁炳煥議員입니다. 뜻깊은 2000년도 제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종로 발전에 미력하나마 기여하기를 기대하면서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종로구 공무원의 현재 인원은 1,492명이며 이 중 동사무소 근무 인원은 302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로구에서는 방대한 조직과 직원 개인의 능력 발전을 위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선 행정기관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목표로 2000년 6월까지 동사무소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기관에 오랜 기간 근무토록 하여 심각한 인사정체 현상으로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서 장기 근무한 직원을 조사한 결과 행정직 4년 이상 근무자는 8급 3명, 7급 3명, 6급 1명이며 5년 이상 근무자는 7급이 2명이며 6급 1명, 5급 1명이며 6년 이상 근무자는 7급 1명이고 기능직 4년 이상 근무자는 8급 2명이며 5년 이상 근무자는 9급 1명으로 총 21명이 근무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장기간 묵묵히 근무하고 있어 이들을 구청 직원과 순환근무를 실시하여 사기를 높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구 관내 근린공원은 입지상 서울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면서 문화재와 사적지가 병행 지정되어 있어 그 이용권이 서울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들 공원은 메마른 도시생활 속에서도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풍요로운 생활 공간을 제공하므로 외국관광객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의 이용객들이 자주 찾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종묘공원은 주민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곳인데도 이곳에서 각종 집회와 시위에 의하여 자연이 훼손되고 있으며 또한 엄청난 교통혼잡을 유발시켜 아름다운 종로거리가 교통지옥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입

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종묘공원을 시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종로거리의 종로1가를 비롯하여 세종로, 을곡로, 대학로 외 8개 노선이 주야를 불문하고 노점상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종로2가에서 6가, 청계천 2가에서 8가, 왕산로는 일몰 후 노점행위 잠정허용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워야 할 종로거리에는 노점상이 진을 치고 있어 시민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주범인 쓰레기 문제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종로거리만이라도 노점상 정비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점상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절대금지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구 정화조 대행업체에서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주거지역 오수처리시설인 정화조 2만 3,960가구와 분뇨수거가구 835가구를 수거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뇨수거 대상 중 미수거 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분뇨 미수거자 대부분이 하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수질오염을 가중시켜 물고기가 떼죽음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 대한 조치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또한 간이수거식 화장실이 인왕산에 8개, 경희궁 5개, 와룡공원 2개, 산림욕길 3개, 발효식은 삼청동 2개 총 30개 동이 있는데 관리소홀로 인하여 악취가 심해 등산객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자연환경의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수세식으로 개조가 가능한 것은 수세식으로 개조하고 개조가 불가능한 것은 발효식으로 개조하여 약품처리를 철저히 하여 발효가 잘 되도록 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 외국인 방문객이나 시민편의를 위해 국제적으로 손색이 없는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준 미달인 관내 공중화장실을 모두 개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미력하나마 구정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吳錦南 丁炳煥議員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宣相善議員님! 나오셔서 끝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宣相善議員 종로의 관문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승인2동 출신 宣相善議員입니다. 존경해 마지않는 洪承台 議長님! 吳錦南 副議長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20만 종로구민의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아름답고 짜임새 있는 선진 종로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25시 구청장이라는 별호를 갖고 계시는 鄭興鎮 區廳長님과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분주 헌신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1,390여 명의 공무원에게도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종로구민과 언론사 여러분! 더욱이 본 의원에게 가르침과 이끄심을 주신 승인2동 주민에게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3일부터 15일까지 2박3일간의 남북정상회담은 7,000만 한민족의 비원을 풀어 줄 수 있는 역사의 큰 획을 긋는 대사건임을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난 13일 10시 20분 평양 순안공항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두 손을 꼭잡는 모습을 보는 순간 우리 온 국민은 가슴 뭉클함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했습니다. 남북정상의 5개항 합의선언문이 가능한 한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는 기원해야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집니다. 종로의 발전이 종로의 관문인 동쪽에도 서광이 비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과 구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3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우리 구 상세계획 전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상세계획 '상'자만 들어도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이 솔직한 본 의원의 심정입니다. 1996년 6월에 상세계획 구역지정이 되어서 동년 7월 29일 경복궁, 9월 9일 교남, 10월 1일 동대문 상세구역이 각각 상세계획 용역이 발주되어 2000년 6월 23일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주민의 혈세로 쓰여지는 용역비를 단 한 구역도 해결하지 못한 채 작금에 와서 상세계획을 해지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추진해온 상세계획 수립용역 현황을 보면 종로구 상세계획 수립용역비 5억 3,394만 7,000원 중 교남·무악 상세구역의 용역비 9,537만 5,000원에서 '96년 9월 9일 1차 용역비 7,200만원 '98년 5월 18일 2차 용역비 1,337만 5,000원으로 합계 8,537만 5,000원을 용역회사인 청석엔지니어링에 집행하고 1,000만원은 미집행되어 있으며, 경복궁 상세구역은 총 8,557만 2,000원인데 '96년 7월 29일 1차 용역비 6,500만원, '98년 5월 19일 2차 용역비 2,057만 2,000원을 용역회사인 유신커퍼레이션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섹터가 큰 동대문 상세구역의 용역비 총 3억 5,300만원에서 '96년 10월 1일 1차 용역비 2억 4,400만원, '98년 6월 3일 2차 용역비 5,900만원을 유신커퍼레이션에 집행하고 현재 5,000만원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또한 '99회계년도 예산 편성된 교통영향평가비 1억 7,000만원 중 교남·무악 상세구역에 '99년 4월 6일 3,948만 7,000원과 동대문 상세구역에 '99년 4월 1일 6,066만원으로 1억 14만 7,000원을 집행하고 6,985만원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지난 101회 임시회시 재부건설 위원회에 의견청취의 건으로 상정된 바 있는 교남·무악, 경복궁 상세계획 해지의 건입니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불편, 의혹과 원성만 가중시키고 했수로 5년 동안 추진해왔던 상세계획이 그림 몇 번 그리고 상세계획 자문위원회,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구의회 의견청취 몇 번하고 5억 4,380만원이 용역회사인 주식회사 청석엔지니어링, (주)유신커퍼레이션에 집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

는데 상세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5년 동안 지연된 이유는 무엇이며 주민의 혈세로 쓰여진 상세계획 용역비가 효율적이고 합목적으로 쓰여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또한 서울시에 상정된 동대문 상세구역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신설동로터리 주변 송인2동 주민들은 상세계획을 마치 구의원이 좌지우지 하는 걸로 알고 의혹을 갖고 몸통이 누구냐 깃털이 누구냐 등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본 의원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도로의 개설은 도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안목적 도로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종로 여러 지역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도로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 본 의원의 출신지역인 송인2동 181-95부터 446번지간 도로개설 구간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본 도로개설은 '99년 4월 19일 착공해서 2000년 12월 31일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철거가 47동 보상금이 17억 4,400만원 도로폭 6m에 도로 총 연장 250m로 도급비 5억 8,004만원의 시비가 소요되는 소방도로로서 종로여건상 시급을 요하는 도로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보상협회가 잘 안되어서 늦고 지역불보합 지역이라서 지적 정리하느라 늦고 우기철과 동절기라서 공사를 못해서 늦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1년 2개월이 지난 현재의 공정률은 30%도 채 안된 것 같습니다. 또한 6m도로개설이라고 하는데 폭 4m도 안되는 곳이 있으며 평균 도로폭이 5m정도인 것 같은데 도로폭 기준은 어디다 두는지 그리고 고도의 레벨을 맞추기 위하여 3.4m정도 흙파기를 하다보니 낭떠러지 위에 낡은 건물이 전망대처럼 우뚝 서있어 위험성을 크게 내재하고 있으며 181-95부터 893번지간 약 70m 도로구간은 약 네 군데나 끊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 구간은 다음에 추진할 도로와 연결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협소하고 구불구불 도로를 개설한다는 것은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확대보상을 해서 도로폭을 넓히고 위험성을 해소하고 굽어진 도로는 선형변경을 시켜서라도 직선으로 도로를 내든지 현장실사를 해서 백년대계의 도로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30년 앞을 내다보는 도로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어제 金福同議員님께서 질문한 내용과 다소 중복이 되지만 대로변 이면도로의 노점상 단속과 입간판 단속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97년부터 시작된 IMF 대한파로 인하여 온 국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서민들의 고통은 더 심하다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노점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고생을 하는 노점상인을 볼 때마다 가슴아픔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질서도 상식도 무너져 버린 현실을 직시할 때 이대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한두 번 가진 것이 아닙니다. 동대문에서 동묘 사이 인도에는 사람이 통행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심지어는 버스정류장 앞에서 승객이 타고 내리기가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상가 앞에 물건을 내놓고 그 앞에 입간판을 세워놓고 인도 전체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으니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주마가편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노점상 단속을 하고 있는지 최소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계몽단속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대안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도로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다는 못하더라도 동네 메인 도로변은 예를 들어 10m도로라면 양쪽 1m안쪽으로 라인을 그려서 그 이상 물건을 내놓지 못하도록 한다면 많은 정리가 될 것이라고 사료되는 바 이 점에 대해 적극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종로에서 오래오래 뿌리박고 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종로구,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이 바쁘신 가운데도 방청해주신

승인2동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副議長 吳錦南 宣相善議員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주민과 지역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질문과 경청을 위해 모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일괄 질문을 여기서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예, 李東奎議員님! 나오셔서 말씀하십시오.

○李東奎議員 의사진행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밖에서 경청하시고 듣는 앰프는 시설이 잘되어 있고 잘 들리는데 본회의장 안에 들어오면 앰프시설이 바짝 대야 제대로 들립니다. 그래서 정회하실 때 그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보셔서 앰프가 본회의장에서 제대로 나오게 해주셨으면 하고 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副議長 吳錦南 李東奎議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잘 되어야 할 본회의장의 앰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관계국에서는 시정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1分 會議中止)

(14時02分 繼續開議)

○副議長 吳錦南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종로구청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鄭興鎭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더위가 시작되고 해서 여러 모로 활동하기가 불편하실 텐데 오늘도 우리 종로구를 아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광범위하게 또는 세세하게 훌륭한 질문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참으로 감사말씀을 드리고 오늘 다섯 분의 주옥같은 질문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좀더 세세하게 성의있

는 답변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吳弼根 委員長께서 질문하신 혜화초등학교 부지 내 종합기술학교 유치방안부터 하나하나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혜화초등학교 부지활용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오래 전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다각도로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는 종로가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강북 개발 억제, 인구분산책으로 우리 종로가 피해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이 되어 있었고 또한 명문사립학교가 강제적으로 또 자의적으로 많이 이주해감에 따라서 종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 것도 사실 일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와서 의원님들이나 저희가 종로를 위해서 일하려고 보니까 남은 것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구민을 위한 복지시설 등을 하려고 해도 우리에게 남겨진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간 있을 때마다 시 당국이나 시장께 우리 종로의 이런 불리함을 역설하고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줘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울사대부중이 관악구로 이전할 계획이고 혜화여고가 이미 교사를 지어놓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두 군데를 대학로 문화의 거리와 역사탐방로를 연계해서 그에 걸맞는 그런 예술학교라든가 그런 복지 공간 확충을 위해서 여러 번 건의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중부교육청 계획을 들어봤더니 혜화여고가 2002년 2월까지 이전하게 되어 있고 현 혜화여고 시설을 보수해서 2002년 3월까지 혜화초등학교를 이전시킬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혜화초등학교 부지는 중부교육청과 서울시 교육청이 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지만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종합예술학교나 기술학교 유치방안과 매각에 대비 서울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고 구의회와 협의, 각종 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병행해서 검토할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성균관대학교 부지매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중부교육청에 부지활용 방안에 대해서 문의한 것은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되지 않고 와전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근본적으로 어제도 말씀드렸거니와 우리 종로에서 학교가 이전되는 것은 우리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운동장을 설치하고 건물을 전부 없앤다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서울시가 지금 각 구에 1구 1운동장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종로는 정말 그런 장소가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너무나 제약이 많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면 그린벨트 자연경관지대라든가 여러 곳을 그렇게 물색도 해봤습니다마는 종로는 그야말로 군사보호 또는 국립공원, 특수지역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제약 때문에 그런 공지를 구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끊임없이 그것을 추진하고 지금도 있습니다마는 평창, 구기, 부암 그 일대에 빈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새로운 법령이 그런 경사도라든가 입목본수를 따져서 그러한 시설을 할 수 없게끔 또 예산 문제도 있어서 우리가 다각도로 검토 중이지만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혜화초등학교가 혜화여고 자리로 이전한다면 거기에 운동장도 건설하고 한쪽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종합기술학교나 종합예술학교 등을 이렇게 설치하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비교적 부지가 넓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은 우리의 안이지 확정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대학로 등 집회가 많은 지역의 보도를 유색 아스콘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평소애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 앞을 보면 아스콘 종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위가 있을 때 대학생들이 보도블록을 떼어서 그것을 던지는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학 부근에는 주로 아스콘이나 콘크리트 바닥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지적하신 대로 그런 투스콘이나 아스콘으

로 이렇게 교체하는 데 의견을 같이 하지만 당초에 그렇게 할 때에는 또 많은 비난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이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양해하실 것은 지하매설물이 있는 곳은 좀 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뜯고 또 시설을 다시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반영구시설은 했을 때 좀 비난이 크고 예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으로 하는 일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혜화역 주변 도로개설 조기착공 요망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런 공약을 했다고 보는데 하도 많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했는가 의심도스럽고 의원님이 거짓말 하실 리는 없고 왜 이것을 안 했을까 아까 국장을 다그쳤더니 중장기계획에 들어있다고 하고 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재정여건이 좋아진다면 하반기에 한번 해보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획에 의하면 2001년 15억의 사업비를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제 절제도 해야 하고 또 입찰도 하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착수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학로, 성대간 역사문화탐방로 개설에 따른 혜화동 지하철 입구 적환장 이전을 재촉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자주 얘기합니다. 현장에 가보면 음식물쓰레기가 흘린 자국이 아주 더럽고 악취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이것이 일반 용역회사로 넘어간다면 좀 나아질 것이라는 과장님이나 국장님 견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거기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대학병원과 혜화역 사이에 보면 좀 한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좀 그것을 사람이 비교적 통행이 적은 쪽으로 이렇게 옮겨달라는 말씀을 방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洪起瑞 運營委員長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참으로 송구스러운 일인데요. 구의회 청사 확장 및 이전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의원님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구구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일부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구청사 신축문제는 우리가 오랫동안 고건 시장에게 건의해서 이 소방본부 문제를 해결해 주십사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해결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남산 청사문제와 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신축문제 때문에 지금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또 알아봤더니 좀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재촉을 할 예정입니다마는 그렇지만 제가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별관에 서울시의 보건사회국이나 가정복지국이 있었는데 그것도 시장께 말씀드려서 이전해가고 구의회가 크게 늘리지는 않았지만 의정회사무실이나 또는 자료실이 좀 늘어난 것이 사실이고 또 우리도 좀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종로구청이 모든 분야에서 이 사무실 분야에서만 보더라도 25개 구에서 가장 적은 면적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대의 목적치는 신축이고 그 다음에는 소방본부가 나갔을 때 그동안이라도 구의회를 넓혀서 의원님이 의정활동 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으로 동사무소의 기능 전환에 따라서 건축 신고, 소규모사업 등 민원처리 지연 또 취미교실, 요리강좌 등 인근 시설과 중복 개설, 동원 과다로 인한 직원 부족 및 차량배치 등의 문제가 도출되고 있어 동기능 전환은 시기상조이므로 전면 백지화하고 이를 행자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가 이렇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능전환은 주민들의 최대의 관심사일 겁니다. 지금부터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는 행자부의 차관을 직접 면담을 하고 또 건의문을 내서 동 기능전환이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본 바에 의하면 아직 시기상조다. 그래서 이것을 좀 백지화 내지는 연기해야 한다. 해서 전국 시·군·구 단체장협의회에서도 행자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가 6번째 간담회를 하고 또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반대가 그러니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찬성하는 쪽이 56.6%, 반대하는 쪽이 43.4%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결과를 청와대, 행자부, 국회 전달하고 동기능 전환을 좀 연기시키거나 백지화해달라고 건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적하신 것도 타당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 점에 대해서 인력문제나 차량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와룡공원 관리개선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와룡공원은 몇년 전까지도 편익시설이 부족하고 주변환경이 매우 열악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96년부터 약 5억원을 투자해서 정자, 에어로빅장 설치와 소나무 등 수목 5천주를 식재해서 공원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사는 즉시 배치해서 나무가 충분히 자랄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급수시설과 전기 시설은 금년 하반기에 1억원을 투자해서 설치하겠으며 공중화장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봄에 식재하고 난 구덩이는 대부분 되메우기를 시작하였으나 미흡한 부분은 조사해서 즉시 조치할 것이고 앞으로도 많은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의 지위향상과 지역사회 참여확대를 위한 집행부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는 국회나 또 모든 사회 전반에서 지적하는 중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여성의 사회활동 능력이 상당히 향상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 또한 눈에 띄게 향상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남존여비의 풍습이 남아있거나 여성을 비하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가 아직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여성의 사회활동 능력을 좀 함양하는 의미에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여성문화센터를 중부, 서

부 2개소를 운영 중이고 동부 여성문화센터는 앞으로 개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로 동사무소에서 여성을 위한 그런 문화강좌를 열고 있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이미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계시는 명륜3가동과 송인1동이 자치센터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주종목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한 바가 많고 또한 우후죽순처럼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중복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좀더 과학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저희 구에서 각종 위원회에 대해서 결원이나 임기 만료시 여성으로 지금 보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을 30% 수준 이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리고 아울러 여성지위 향상과 참여기회 제공을 위한 관련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보시느라고 吳錦南 副議長께서 직접 나오시지 않았지만 질문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따라서 구로 이동할 직원의 효율적 배치 및 동사무소 업무체계에 대한 대책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어제 安載弘議員님과 조금 전 洪起瑞 運營委員長님과 그 질문이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답변으로 같음하는 것을 해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에서 교부하는 지방세 세외수입 과태료 등 일체 수입의 미수납금에 대한 대책을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도 어제 安載弘議員께서 질문한 내용과 유사한데 약간 피력하자면 구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목 중 2000년 4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616억 2,800만원이고 그 중 세외수입 체납액이 176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체납지방세 징수 제고를 위해서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하여 부동산, 차량, 급여 등을 압류해서 채권을 확보하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 불량자로 등록하여 체납자의 신용을 제한하는 징수소멸시효기간 5년이 경과된 체납자와 무재산, 소재불명 등 체납자는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 3월에서 6월까지 4개월간을 체납징수특별정비기간으로 정하고 전 직원 개별 체납징

수 목표액을 해지해서 100만원이상 고액채납자는 간부들이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매월 정수책임자 평가 보고회를 개최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양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이 타구에 비해 저조한데 보급률을 높일 대책은 없는가 말씀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도시가스 보급 확대는 구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저희는 업무용 빌딩, 상가 업소가 밀집된 도심지역으로 도심재개발사업과 지하 저장물 등이 도시가스 보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그야말로 달동네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또 암반지역이 많아서 공사에 애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현재 저희가 73%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확장일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시작된 '95년 31%에 비하면 150%로 확충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말까지 75%까지 올릴 예정이고 앞으로 2002년 90%이상 우리가 확충할 계획임을 보고말씀 드리고 참고로 서울시 타구 평균이 84%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특히 어려운 것은 도심재개발 사업으로 예를 들어 가까이 있는 청진동같은 데는 가스공급이 안됩니다. 도심재개발사업이 해결돼야만 공급되기 때문에 이러한 %에 대해서만 뒤지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75%에 달하는 보급률이 되었다는 것만도 상당히 기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어쩌면 자화자찬을 하고 있는 지도 모르지만 많이 도와주셔서 괄목할만한 향상을 보였다고 하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및 무단투기 근절대책, 용역회사 관리 문제점과 금년 6월말 환경미화원 18명이 줄어든 환경미화원 248명으로만 정원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 사실 여부 및 환경미화원 정원정책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가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쓰레기 수거와 처리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가장 큰 현안문제일 것입니다. 방금 제가 검단에서 오신 거기 대책위원들과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7월로 예정됐는데 지금 10월말로 연기된 쓰레기 대란 특히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들 의견도 그렇지만 남의 쓰레기를 내 옆으로 갖다 버린다는 것을 아무나 그렇게 허락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심각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도 보고말씀 올렸지만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고 또 서울시에서 중량하수처리장에서 그렇게 받아주기로 했는데 그게 늦어짐에 따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리자면 검단으로 보내는 것이 저희가 훨씬 싸게 먹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지금 누누이 설명드렸고 우리 쓰레기만 당분간 좀 받아주십사 하고 간청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쓰레기 수거방법에 대해서는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수거와 연계해서 종합적인 개선책을 수립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쓰레기 무단투기와 청소대행업체 관리에 관해서는 어제 金福同議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한 것으로 같음하고자 하니 해량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吳錦南 副議長께서 환경미화원 정원이 6월말 기준으로 247명으로 감축되는 것은 사실이며 환경미화원 정원은 '99년 7월 20일 서울시 청소인력조정기구 내 조정기준에 의거 책정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인원이 줄어드는 자연감소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 차츰 넓혀가는 그래서 소위 아웃소싱 정책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丁炳煥議員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각 동에서 직급별 4년이상 근무자에 대한 순환근무 실시로 직원 사기진작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사기진작에 대해서 이렇게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진 것에 대해서 행정을 맡은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아시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도 두 가지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이제 전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공무원이 전문화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반대로 또 한 가지는 오래 있으면 부패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상충되는 그 의견을 우리는 현명하게, 적정하게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도 소위 배경이 없으면 아주 한직에 머물러야 한다는 이런 비난의 소리도 있고 능력이 없어도 정실에 가까워서 아주 좋은 노른자위의 직책을 맡고 있다 하는 비평의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많은 풍속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총무, 기획, 감사 이런 데가 노른자위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 각 지방자치단체가 어디에 강점을 두느냐, 주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재 배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청소행정과장이 특별히 우수하다고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만 행시출신인데 제일 먼저 청소행정과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문제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우리 구민에게 얼마나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감안해서 젊은 엘리트로 하여금 열심히 일해서 우리 구민의 현안을 해결도록 그렇게 배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4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셨는데 좋은 지적이어서 인사 전보 때 이 점을 감안해서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에서 4년 이상 근무자를 살펴보니 21명입니다. 행정직이 13명, 기능직이 8명입니다. 앞으로 동기능 전환 등 인사요인 발생 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보직 등 거의가 만족하는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집회와 시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종묘공원을 시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제 金福同議員님도 유사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을 지키려는 충정을 참으로 우리는 높이 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행법령에는 시위금지구역이 국회의사당을 비롯하여 삼부요인 공관 및 국내주재 외국공관 등에 한하여 100m 이내로 제한되어 있

기 때문에 종묘공원을 시위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로는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시위금지구역으로 해주십사 하고 노력할 것입니다. 종묘공원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는 지난해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 넓은 부분에 화단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장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많이 효과를 고양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 시위하는 사람들이 접근이 편리하고 효과를 보기 위해서 탑골이나 종묘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 많습니다. 이삼백만의 유동인구, 각종 시위, 집회 등으로 우리 구민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이번에 탑골공원에 대해서도 우리 종로구민을 위하고 민족의 성지인 만큼 요즘 수많은 부랑인들 등 그야말로 혼탁케 하는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서울시에 보고하고 서울시장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서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을 배치하고 해병전우회를 배치해서 그러한 소위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엇그제는 일부 불량한 사람이 우리 직원에 대해서 행패를 부렸는데 해병전우회에서 그 사람을 제재해서 효과를 본 점을 보고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종묘공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에 건의해서 시위금지구역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노점상에 대한 정화 용의와 종로구역 절대금지구역 지정 용의를 말씀하시고 또 宣相善議員께서도 대로변 및 이면도로의 입간판 단속 방안과 지역 주요 도로변에 일정 부분의 선을 그어 노점상을 허용하는 방안은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먼저 노점상 노상 적치물로 인한 시민 통행 불편사항을 어제든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는데 우리 종로의 현안 중 하나일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노점상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일 것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종로, 중구가 이 점에 대해서 크게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발생하면 단속

하고 단속을 하고 나면 재발생하는 이런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노점상 정비는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서울시가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전국 노점상협회라든가 노점상들이 마스크에 의하면 모두 일어나서 서울시에 크게 항의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단속원이 없으면 그야말로 우후죽순처럼 길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만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대응하고 서울시에 힘을 합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인력 문제는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40명에서 19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지하철 입구라든가 버스정류장이라든가 택시승강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좀 강력히 단속해서 구민이 보행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입간판 등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도 관리계획을 강화해서 상습지역부터 집중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종로일대 절대금지구역 지정 의견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서울시와 협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고 宣相善議員님 말씀하신 대로 주요 도로변의 일정 부분에 선을 그어 노점상을 허용하는 의견은 기존의 노점상이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 등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신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점에 대해서도 한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신시장 각 점포가 자기 앞으로 너무 내놨기 때문에 상인협의회와 상의해서 페인트로 선을 그어서 그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면도로 같은 데는 도입해볼 만하지 않은가 해서 이걸 적극 검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내 공중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조하거나 재래식 화장실을 발효식으로 개조할 용의는 없는가 하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 역시 어제 질문하신 것과 유사한 점도 있는데요 저희 구 공원 내 공중화장실이 총 1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모두 수세식으로 되어 있지요. 화장실 개

선사업이란 작년부터 지금까지 3개 동을 증·개축하거나 수선했고 금년 하반기에도 6개 동을 증·개축하거나 수선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는 잔여 동 모두를 최신시설로 개선해서 이용하는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재래식 간이화장실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발효식 화장실로 교체해 나가고 앞으로 신규 설치시는 반드시 발효식 화장실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분노 및 정화조 미수거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역 및 재래식 화장실 단속사항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어제 金福同議員님 질의와 비슷하지만 자료를 보면 1,012개의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중 465개소의 실태를 조사했는데 하수구에 연결된 화장실을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1회 이상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는 정화조 청소 미이행자 120건에 875만원 과태료를 '99년도에 부과했고 금년에는 100건에 8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공중화장실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켜서 문화, 휴식공간 기능을 갖춘 화장실로 시설을 개선해서 선진국 화장실 수준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宣相善議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5년 동안 지연된 사유 그리고 주민의 혈세인 용역비가 타당하게 쓰여졌다고 생각하는가 하고 따끔하게 질책을 해주셨습니다. 상세계획이 지연되고 당초계획대로 결정되지 않아 해당지역 의원님들이 그야말로 노고도 크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상세계획은 당초 잘 아시다시피 용도지역을 상향시켜서 주민들에게 개발이익을 주자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동대문상세구역은 지역이 넓고 많은 주민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용역기간만 3년이 소요되었고 공람·공고,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도시계획 절차만도 6개월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법령 개정으로 교통영향평가가 추가되는 바람에 8월 이상 소요됐습니다. 주민들은 가급적이면 용도지역을 더 높게 상향시켜 줄 것을 희망하나 서울시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에서는 용도지역 상향에 반대하고 서울시와 협의하고 보완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동대문구역 상세계획은 지난 5월초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 절차를 거친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에 있으며 신설동 로터리 부근에 도로계획이 변경된 이유는 서울시 상세계획자문위원회에서 변경하도록 요구해서 이를 반영한 것이고 주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서울시에는 총 일흔한 개소의 상세계획구역이 있으나 일부 외곽지역에 소규모로 지정된 10개소만 결정되었을 뿐이고 타 자치구의 경우도 우리 구와 유사한 어려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역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당초 계약된 총액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분할 집행하고 있으며 장기간 동안 지침 및 법령 개정에 따라서 계획 수립, 변경을 반복하고 예상치 못했던 수차례 심의자료 준비 및 절차 이행 등에 의해서 당초 계약된 처음 내용에 많은 부분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집행된 용역비는 물론 잔액에 대해서 계약내용과 수행 내역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준공 시 정산토록 함으로써 예산 낭비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이 참으로 더디고 또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어렵게 만드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행정쇄신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의 체감에 맞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도 그렇지만 시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1개월에 한번 열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6개월 동안 준비하고 공람도 하고 구의회 의견을 듣고 해서 시에다 올리는데 거기서 보류하거나 반대하면 한 6개월 이상 흘러가고 맙니다. 같은 내용을 다시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는 시장을 만나서 우리 구에도 사람 있다. 우리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구의회도 있고 전문가도 있다. 그런데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현지인이다. 그러면 우리 종로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된 내용을 그렇게 전달한 것이다. 그런데 무성의하게도 어찌면 유토피아를 꿈꾸는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그것도 다수가결이 아닌 만장일치로 결정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우리들의 그 희망과 꿈이 물거품이 되고 만다. 이런 제도는 없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나라 현행 제도가 개선돼야 할 것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초창기에 시장께 좀 혹독한 얘기를 해서 신문에 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 일을 우리 구 스스로 맡긴다고 해서 우리가 인왕산에 공중화장실 짓자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지방자치제가 실시됐으면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지키고 우리의 일을 더 열심히 할텐데 일껏 우리가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서울시 담당이나 간부들도 인정하고 시의회에서도 통과됐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옥상옥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비토하면 표류해 버려 가지고 구민들의 원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잘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宣相善議員께서 겪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제 5년 차가 되고 있습니다만 수없는 매스컴의 비난도 받고 있습니다. 마땅히 따져보면 서울시에서 결정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무슨 부정에 개입했는지 무엇을 받고 했는지 이런 누명을 받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아까 질문에서도 말씀하셨겠지만 몸통이 뭐니 깃털이 뭐니 하는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저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 저에 대한 신념은 있습니다. 진실이란 것은 더디지만 언제든지 빛나는 것이다 이런 신념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람되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신다면 반드시 진실은 영원히 빛날 것이고 더디지만 언제든지 행복한 의정생활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동대문 상세구역 문제에 대해서도 개개인이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모두가 합의하는 그런 바람직한 계획으로 되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송인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도로개설 공사 구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금이라도 확대보상해서 도로폭을 넓힐 용의는 없는가? 선형변경을 하여 도로의 굴곡을 바로잡을 용의는 없는지, 도로폭의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행히 조사해보니까 이것이 '93년도에 수립된 계획이었습니다. 우리 宣相善議員께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여하시지도 않았고 소생도 취임하기 이전의 문제여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만 그것은 누가 했던 간에 불합리한 것은 마땅히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백년대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몇 십년은 내다봐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일부 구간의 경우 도로굴곡이 심하고 도로폭이 6m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는 송인동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지역이 경사가 심하여 도로에 옹벽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도로폭이 계획만큼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법령상 도로폭은 도로에 설치된 옹벽의 폭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저의 차가 심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확대 보상을 해서 도로폭을 확대하고자 했습니다만 오히려 건물주가 확대보상을 반대하고 있어서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선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공람 절차,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고 도로에 새로 편입되는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하여 수용절차를 거치려면 1년 이상이 소요되어 또다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향후 개설구간에 대해서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조사해서 필요한 구간을 확대보상토록 해서 도로의 선형과 폭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주민들을 설득해서 공익이 우선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렸습니다. 항상 우리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 어제와 오늘 참으로 무더위 속에서 열정적으로 질문을 해주시고 부족한 소생의 답변을 경청해주신 데 대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9만 종로구민과 또 우리 1,400여 공무원을 같이 해서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저께 우리가 9주년 행사에서 뵈고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종로가 해를 거듭하면서 어느 구에 못지 않게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고 이 점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희생적으로 이렇게 헌신한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 20만 구민이 모두 존경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적하신 문제들이 거의가 법과 제도적인 문제, 그리고 재정상의 문제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과 더불어 노력해서 이런 여러 가지 난관을 타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돼서 저도 의원님들의 하교를 받아서 열심히 일할 것과 그리고 또 우리 1,400여 공무원들이 열아홉분의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충분한 파트너십과 그리고 견제와 감독을 받아가면서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부족한 저의 답변에 대해서 끝까지 경청해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吳錦南 鄭興鎮 鐘路區廳長님! 장시간 상세하게 답변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문은 당초 내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등 여러 가지 민생 현안 안전심의 등을 고려하여 오늘 보충질문과 답변까지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지금부터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제1항의 규칙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議員!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議員 있음)

예, 安載弘議員!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安載弘議員 安載弘議員입니다. 청장님께서 이틀간 두 시간에 걸쳐서 성의있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설치에 관한조례를 폐지하고 주차장에 관여한 잉여예산 약 200억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침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시다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이 안 나오셔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변경하는 문제는 종로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설치에 관한조례만 개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효자동 사랑방 매점 수입 4,000만원은 예산 총계주의에 어긋나므로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하신 걸 보면 이것이 종로구 후생복지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내실있고 투명한 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효자동 사랑방 매점은 종로구 후생복지운영규칙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지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부당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적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직원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내역을 보면 실제로 약 5,000만원의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매점에서는 약 3,773만원, 자판기에서는 7,898만원, 효자동 사랑방에서 4,000만원, 팔각정 망원경에서는 1,257만원 해서 약 1억 1,0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내식당에서는 약 6,9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자동 사랑방 매점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라도 약간의 여유가 있다고 생각돼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질문드립니다.

그 다음 유료광고를 위한 조례와 주민공청회에 대한 조례 제정을 제안했는데 답변하실 때 보면 각종 조례 제정에 대한 입법예고시 의회에 협력해

서 공청회, 간담회를 개최할 용의가 없는가 그렇게 질문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좀 잘못돼서 아까도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종 도시계획이나 또는 도시설계 과정에 있어서 보면 주민 참여가 초기부터 시작된다면 상세구역을 확정하거나 또는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때 비교적 주민의 참여가 높다면 소위 계획에 오류가 없다는 거죠. 즉 말씀드리자면 지금 상세구역이 교남·무악, 경복궁이 최근에 완전히 무효화되어 있습니다. 없던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용역비가 굉장히 손실이 많았는데 그런 것에 기본적인 원인도 계획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 계획에 주민의 참여가 극히 제한됐다는 겁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교적 전문가 집단이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잘 알 수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종로구에서 어떤 도시계획이나 도시설계를 할 때 초기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설명회라든가 간담회라든가 공청회를 반드시 거치게 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책으로의 조례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구 건전 재정을 위한 기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세 세입이고 또 하나는 세외수입인데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99년도 1월의 팔각정 입찰 내역을 보면 13억 1,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1월의 재입찰 낙찰액은 주차장을 포함해서 약 12억 6,370만원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적어도 그 가격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외수입의 중요한 부분이 산술평균치로 보더라도 약 3억의 손실을 끼쳤다 이겁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어떤 책임에 따른 문제가 없나 이것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의회사 집행부는 우리 청장님께서 언제나 강조하듯이 종로구 지방자치단체라는 수레를 끌어가는 두 개의 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본 의원도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비교적 의회가 소외되는

기분이 드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왜 그러나 하면 적어도 청장을 보좌하는 각 局長들이나 課長들이 좀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의원들이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원들이 어떤 민원사항을 부탁할 때 비교적 여러분들이 의원이 부탁하는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수첩이나 리스트를 갖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토목과에 어떤 일을 부탁하면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한테도 그렇고 계장한테도 그렇고. 이런 점들이 의원들을 소외되게 하고 의원들로 하여금 좀더 집행부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기회를 잃게 하는 그러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본 의원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종로구를 정말 건전하게 이끌어가고 살찌우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런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련된 공무원들께서는 이러한 포괄적인 문제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문할 때 언제나 성의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청장님이 빠른 대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副議長 吳錦南 安載弘議員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시면 나와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하는 議員 있음)

예, 李東奎議員!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東奎議員 李東奎議員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순서 제1번으로 구정질문을 드린 내용 중에 구민회관 운영위원회 설치조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청장님께서 답변이 좀 미흡하신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좀 다시 합니다. 구민회관 설치 운영조례 건에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 이사회하고 같이 상통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는 결과가 어떻게 나오나면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상정하지 않았어야 됩니다. 상통되는 부분이 있는데 구민회관 운영위

원회를 뭐하러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우리 하부직 직원들께서는 설치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청장님 답변은 나중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직접 운영할 때에는 운영위원회를 다시 설치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의원이 다시 나와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구민회관 운영위원회라고 설치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해가지고 만들어놨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례를 개정한 설치조례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부분이 거기에 분명히 지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소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칩니다.

○副議長 吳錦南 李東奎議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을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은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답변을 위하여서면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질문하신 安載弘議員님과 李東奎議員님은 의의가 없으십니까?

(○安載弘議員 議席에서 - 의의 없습니다.)

(○李東奎議員 議席에서 - 의의 없습니다.)

그러면 安載弘議員님과 李東奎議員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2회 정례회 구정질문의 건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02회 정례회 구정질문의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6월 24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및 안전 심사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7월 4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鄭興鎮 區廳長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모두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15時06分 散會)

【書面質問書】

○吳錦南議員 존경하는 20만 종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화합과 결속으로 행정부의 감시자의 역할을 하고 계신 洪承台 議長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만 종로구민의 새로운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아름다운 종로 가꾸기에 만전을 기하고 계시는 鄭興鎮 區廳長님과 盧張鐸 副區廳長님, 국·과장님! 또한 1,300여 종로구청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격려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천년을 맞이하면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례회의 뜻깊은 이 자리에서 주민의 삶을 높이고 풍요롭고 가장 아름다운 우리 종로구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에서 구청장님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번째,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전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의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여 동사무소 직원을 반으로 줄이면 그 인원은 구청으로 흡수할 것인지와 또한 구청 내 2~3개 과를 늘린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과연 과를 늘일 것인지 동사무소 업무처리는 구청으로 그 인원만큼 이관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시범구로 지정된 구에서는 아침에 구청으로 출근하였다가 다시 동사무소로 출장을 가는 형태로 근무하는 형식을 하고 있어, 그 행정의 절차가 매우 번거롭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구도 행자부의 지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기이 시달된 사항과 상관없이 효율적이면서 자율적으로 구청의 뜻대로 직원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우리 구의 체납액에 대해 질문을 드

리겠습니다. 종로구의 미수납액은 시·구세 합해서 77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과세별에 따라 특성이 있겠으나 이제는 분야별로 세수에 따라 특성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몇 천만의 결손처분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미납부 시에는 가압류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5년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차주는 과연 5년 이후 폐차시 차값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해당 차에만 압류하고 다른 재산에는 압류를 안하므로 5년 이상 운행하는 차주는 주차스티커가 아무리 많아도 별문제가 될 게 없다는 차주의 뜻입니다. 자동차에만 가압류를 하는 제도를 다른 재산에도 대체압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수납액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되고, 기타 다른 세수도 선납제 제도를 도입하고 결손처분할 액수를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 미수납액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쓰레기 수거방법 개선 및 근절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종로구는 청소대행업체가 신창, 대승, 평야 3개 업체로 신창은 사직동과 종로5·6가 일부지역, 대승은 종로3·4가, 평야는 종로1·2가, 송인2동, 창신1동 일부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던 지역이 미화원 정년퇴직으로 대행업체로 바뀌짐으로써 예산에 효율성은 있다고 봅니다. 과연 대행업체로 전환함에 따라 예산은 얼마나 절약이 되며,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창신1,2,3동, 송인1,2동, 명륜동을 대행업체로 할 경우는 얼마나 예산이 절약이 되며, 7월 1일부터는 미화원이 266명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은 더 이상 감축이 없고 266명의 인원을 계속 유지하기로 미화원과 약속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여부와 용역회사가 관리하는 지역에 무단투기가 20~40%가 더 많다고 합니다. 현재 민간위탁업체가 하는 곳에 상습 무단투기 장소에는 몰래카메라(약 대당 30만원)를 설치하여 무단투기자를 근본적으로 색

출하는 등 도시 청소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는 '99년 8월 현재 73%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25개 구청 중에서 강북구 다음으로 가장 저조한 보급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도 너무 소홀한 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가스 시공회사가 수익성에 맞춰 공사하기 쉬운 곳만 선택하여 왔기 때문이며, 구에서는 특별한 관심이 부족하여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좋은 여건의 지역은 거의 끝나고 취약지역만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결국 서민층만이 살고 있는 곳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이나 구 자체에서도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금융융자까지도 하고 있으나 용자가 저조한 실정이며, 종로구 시설업체가 5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결같이 모두가 시설비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견적 자체가 그들만의 계산식이고 위험성이 있어 다른 업체는 선정할 수 없는 취약점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비싼 시설비 요구가 시행되고 있어 주민은 어쩔 수 없이 시공하는 실정입니다. 업무를 맡고 있는 과에서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논의되어서 시정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이제부터라도 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앞장서서 도시가스 보급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이 어떠하시며, 내년도의 보급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새천년을 맞이하여 지난 세기에 우리가 반복해 온 잘못된 관행과 행태들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희망과 번영의 21세기를 우리의 세기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出席議員 19人

洪承台	吳錦南	鄭泰淳	李憲九
千相旭	玄壽漢	丁炳煥	李炯述
金福同	安載弘	劉燦鍾	朴鍾植
吳弼根	洪起瑞	崔康洵	金以煥
李東奎	金正大	宣相善	

○出席關係公務員

區廳長	鄭興鎭
副區廳長	盧張鐸
行政管理局長	金賢植
財務局長	董連浩
生活福祉局長	李炳滿
建設交通局長	吳鍾錫
都市管理局長	河徹昇
保健所長	李星世